

# 정년퇴임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 of Retirement

**문창호** Moon, Chang-Ho  
 참여이사,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unsan National University  
 mchangho@kunsan.ac.kr

## 머리말

우리나라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든 정년을 맞게 된다. 그래도 대학교수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일찍 마음만 먹으면 제법 긴 시간 퇴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퇴임한 지 1년 반이 되어간다. 재직 중 예상했던 퇴임 후 생활은 현실과 만나면서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있다. 해도 지지 않았고 갈 길이 아직은 멀다.

나의 퇴임 이전과 이후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면 정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 정년퇴임 이전

10여 년 이전부터 은퇴를 생각하면서 퇴임한 선배를 만날 때마다 현재의 생활을 물어보는 기회가 많았다. 경우가 다르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나는 좀 일찍부터 준비하지는 생각을 하였다.

제일 먼저 고려한 점은 내 인생을 어디서 마무리할 것인가와 은퇴 후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지내서 고향 친구가 많은 장소인 익산, 대학 교육을 받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했던 장소인 서울, 30여 년 교수로 근무하며 아이들 키우며 생활한 장소인 군산 등 3가지 옵션이 있었다.

다 각도로 검토한 결과, 물(바다, 강, 호수)과 산 등 자연환경이 좋고, 역사와 문화가 있어서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하고, 좋아하는 운동(골프, 테니스 등)을 즐기기에 적합한 군산에서 인생을 정리하기로 작정하였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개성이 없는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디자인해서 지은 단독주택에서 살아보지 못한다면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았다. 아내는 환금성 없는 주택건축에 반대하였지만 내 강력한 의지에 동의해주었고 지금은 더 좋아한다.

그간 주말에 도시 내의 월명산에 다니면서 봐 두었던 산기슭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땅을 찾았다. 정원도 만들고 채소도 조금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대지를 매입하였다. 대지는 주변에 원룸이나 저층 아파트도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블록은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내는 가정을 전공했고 전업주부로서 지내왔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서, 함께 1년여 시간을 투자하여 설계하였다. 수없이 수정을 반복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가정생활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때 아내의 취미생활(도예, 목공)과 은퇴 후 내가 사용할 사무소 공간도 지하층에 확보해두었다. 마침 대지에 경사가 있어서 지하층인데도 창문도 있고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1층은 주택으로,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도 받아 놓았다.

1986년 취득한 건축사면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퇴임 후 내 이름으로 건축설계를 해보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을 지음으로써 사무소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였고, 동영상을 보면서 건축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 캐드와 스케치업을 익힘으로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준비했다.

물론 재직 중에 지인의 주택 몇 채와 우리 집을 설계하고 현장 지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경험도 축적한 상태이다. 내 능력은 건축주와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위탁하여 해결하였다.

제자의 제안으로 작년 8월 말 퇴임 전시회를 열었다. 준비과정에서 자료의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다. 박사학위 심사위원이셨던 원로 교수님께서 퇴임전시회 안내장을 받고 축하 전화를 주셨는데, 퇴임 이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는 말씀이다. 퇴임하고 1~2년 지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즉시 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장롱 건축사면허를 살리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 이름부터 “균형”이라고 짓고,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회사의 로고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도 마쳤다. 서류상으로는 퇴임 다음 날인 9월 1일 나홀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 정년퇴임 이후

퇴임일 이전에 일찍 연구실을 비우려고 몇 달 전부터 이전작업을 시작했으나, 30년 이상 묵은 짐 정리가 쉽지 않았다. 대학의 연구실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자료와 집기만 챙겨서 집 지하의 사무실로 옮겼다. 공간은 대학 연구실 보다는 약간 큰 규모인데 도로와 정원의 나무가 보이는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사무실 개소 후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고 각종 정보도 받아보고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전국건축사대회, 전북건축사협회 건기대회 및 송년 모임, 군산건축사회 월례 모임 등.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부안군 군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은 유지하면서 임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시설 관련 제안서 심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 심사, 지역의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심사 등에 가끔 참여한다.

아직은 명예교수로서 매주 한 번 학교에 나가서 3시간 학부 강의하고 건축과에 들러 학과 교수들과 점심 식사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학과 교수들의 운동, 등산, 회식 등 각종 모임에도 연락이 오면 최대한 참여한다. 그간 소통해오던 학과 교수 카톡방은 얼마 전 탈퇴하면서 학과 교수와 적절한 거리를 두었다.

대학과 관계도 어느 정도 지속하기 위하여 교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즉 교수테니스회 회원으로 가끔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며, 지난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 시니어부로 출전하여 몇 라운드 올라가기도 했다. 교수골프회도 아직 탈퇴하지 않고 회원으로서 월례대회에 참여한다. 종종 교수산악회 등산 모임에도 나가서 함께 땀을 흘린다. 또 가능한 한 재직 중 교류했던 교직원의 애경사도 챙긴다.

퇴임하면 단독주택 설계, 플로팅 건축 연구와 계획, 병원 건축이나 노인주거시설의 계획과 설계 등을 할 것으로 예

상했는데, 막상 사무실을 열고 보니 주변에서 나를 요구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담당해주기를 원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후 한 일을 보면,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보건소 설계 공모에 참여, 또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자문으로 공동주택 설계 공모에 참여, 지역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플로팅 건축 기획연구 용역 수행(지역의 건축사사무소 및 군산대 교수진과 공동), 군산대의 지역개발계획 용역에 건축사로서 참여 등이다.

하루 중 적절한 시간에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월명산 호수 변을 한 바퀴(4km 정도) 걷는다. 호수를 바라보며 40~50분 정도 산책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은 높이 100m 정도의 봉우리를 2~3개 오르기도 한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동내소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운동기구를 이용한다.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아침 식사 후 실내 계단을 통하여 1분 만에 지하층 사무실로 출근한다. 물론 비정기적인 출근이다. 이메일 열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나라장터의 설계 공모도 찾아보고, 인터넷 뉴스도 보고, 건축 관련 잡지나 책도 읽고, 진행 중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내도 1층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낸다. 필요하면 서로 카톡으로 교신한다. 외부에 식사 약속이 없으면 아내와 함께 하루 1번은 외식하여, 가능한 집에서 3식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맺음말

대학교수직을 퇴임했으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친구나 지인과 교류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다.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의 20% 정도 시간만 사무소 업무에 할애하는 것 같다.

지역 건축계에는 80~90대 왕 원로도 많이 계시지만, 어찌다 보니 나도 신참 원로 대접을 받곤 한다.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과 건축업무를 감당하면서, 다양한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돕고 건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㉓